

환경운동 대모가 들려주는 바다 이야기

우리를 둘러싼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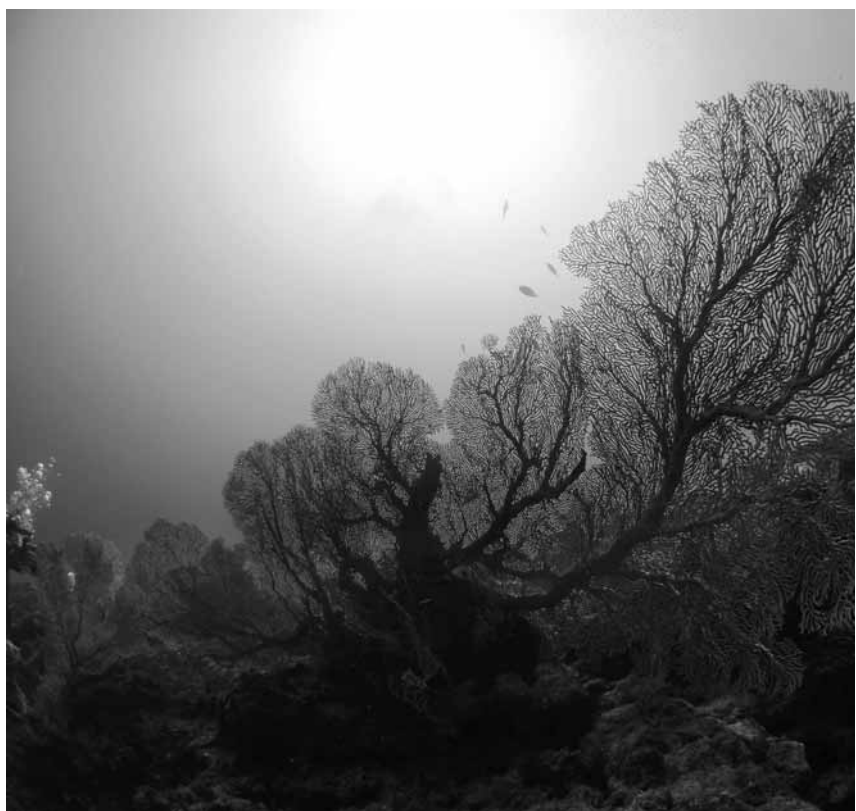
레이철 카슨 지음, 김홍옥 옮김



오랫동안 바다는 미개척 분야였다. 인간의 마음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곳이었다는 의미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 기간 필요성이 명확해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해양 강국들이 바다를 연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알려진 대로 해양학은 1950년대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이 시기에는 유인 잠수구가 해저 깊은 지점까지 내려갈 만큼 해양 분야가 도약했다. 뿐만 아니라 잠수함이 얼음 밑으로 북극의 해분(海盆) 전체를 횡단한 것도 이 무렵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성취는 광대한 바다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1950년대 수많은 독자들의 해양에 대한 관심을 사로잡은 책이 발견됐다. 자연사와 과학사를 버무린 책은 진지하면서도 강렬하게 독자들을 파고들었다. 생태주의자이자 환경주의자인 작가 레이철 카슨(1907~1964)의 '우리를 둘러싼 바다'는 출간 두 달 만에 베스트셀러에 진입했다. 저자는 '타임'이 선정한 20세기를 변화시킨 100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도 뽑힐 만큼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운 주



'우리를 둘러싼 바다'의 저자 레이철 카슨은 1950년대 이미 바다에 대한 해박하면서도 매혹적인 글로 해양학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인공이다. 이번엔 나온 '우리를 둘러싼 바다'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바다의 가장자리'와 함께 레이철 카슨의 대표작이다. '레이철 카슨 깊이 읽기'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책은 전 생애에 걸친 자연 사랑을 되새기는 여정 등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우리를 둘러싼 바다'의 특징은 매혹적이면서도 풍부한 구성에 있

는데 있다. 기교적이면서도 해박한 저자의 식견은 환경 관련 분야도 충분히 시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자는 책에서 바다 전체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 방식을 바다를 의인화하는 것으로 구체화한다. 작가의 역할을 바다가 들려주는 얘기를 받아 적는 선에서 국한한 것이다. 바다의 작용, 영원성, 생명을 보살피는 모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

는 것은 그 때문이다. 지구의 냉각과 바다의 생성을 다루는 저자의 시각은 한 편의 에세이를 보는 것만큼 다채롭다. "지구의 지각이 충분히 냉각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때 이후로 그토록 엄청난 비가 쏟아진 적은 결코 없었다. 비는 며칠, 몇 달, 몇 년, 몇 세기 동안 밤낮 없이 줄기차게 내렸다. 비는 대기하고 있던 해양분자로 흘러 들어갔고, 대륙 위에 쏟아진 빗줄기는 빠져나가 바다를 이루었다."

해양 오염에 관한 문제 제기도 당시로서는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었다. 1950년대까지 바다는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나 오염된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자연'의 공간으로 치부됐다. 광대한 데다 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 탓이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해양 동물이 방사능 동위원소를 체내에 축적하고 분배한다는 사실이다. 먹이 사슬의 관계를 살펴보면 결국 인간에게까지 이르는 심각한 문제다. 고래 같은 덩치가 큰 동물은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바다에 버려진 방사성 원소를 널리 퍼뜨리는 데 한몫한다.

저자는 "처음 생명체를 탄생시킨 바다가 이제 그들 가운데 한 종이 저지르는 활동 때문에 위험받고 있다니 참으로 알맞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바다는 설령 나쁘게 변한다 해도 끝내 존속할 것이다. 정작 위험에 빠지는 쪽은 생명 그 자체다"라고 경고한다. <에코리브르·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달미, 완전범죄는 없다=이 책은 완전범죄를 노린 범죄 행태와 이를 뛰어넘는 수사기관의 노력, 양자의 치열한 수 싸움을 담았다. 사건이 발생하고 범인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경찰 모습을 조망해보면서, '쫓고 쫓기는 자'의 치열한 두뇌 싸움을 그렸다. 사건 전말을 전개하면서 그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최신 과학수사 기법을 함께 소개한다. <북콤마·1만6000원>

▲나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부른다=이 책은 법조인, 회사원, 엔지니어, 작가, 공연 예술가, 카피라이터 등 30대 이하 25명의 글을 모아 꾸린 작품집이다. 다양한 인종과 종교, 사회적 배경을 가진 평범한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페미니스트를 표방하게 되었는지를 보인다. 필자들은 고유한 목소리와 배경과 감수성을 지녔다. 그들은 서로 결이 다른 삶을 살고 있기에 여자도, 또 페미니스트로 사는 것에 관해 각양각색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열린책들·1만5000원>

▲실리콘밸리의 폐기경영=저자 조영덕 박사는 학습(MBA)과 경영학 박사과실제(외국계 기업의 CEO, 실리콘 밸리 현지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의 주요 흐름을 통찰해 이 책을 펴냈다. 이 책은 폐기경영의 개념 뿐만 아니라 폐기경영을 통해 혁신한 실제 기업의 사례들을 제시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독자들이 자신이 담고 있는 조직에 적용하여 무엇



을 폐기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폐기경영 실행 가이드와 과정까지 상세하게 제시한다.

<클랜비디자인·1만5000원>

▲진정일 교수, 소설에게 과학을 묻다=이 책을 쓴 진정일 교수는 액정 고분자의 세계적 개척자로 전도성 고분자, 전계 발광 고분자 및 DNA의 재료과학 등의 연구에서 420여 편의 논문을 세계적 학술지에 발표하며, 그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화학자다. 그는 김동리의 '달', 황순원의 '소나기', 손창섭의 '비오는 날', 현진건의 '운수총남', 최서해의 '홍염' 등을 모티브로 해서 과학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공리·1만5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4차 산업 혁명이 바꾸는 미래 세상=이 책은 4차 산업 혁명이 무엇인지,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아이들은 책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기술과 변화를 직접 체험해 보며 자신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폴빛·1만2000원>

▲동물들의 놀라운 지구 여행기=해마다 믿을 수 없는 먼 거리를 여행하고, 또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동물들. 신비로운 동물 대이동의 세계를 아름다운 그림으로 펼쳐보여 주는 그림책이다. 해파리 떼를 쫓아 헤엄치는 장수거북, 꿀주린 꿈을 피해 거센 물살을 거슬러 강으로 돌아가는 홍연어, 하늘을 뒤덮으며 집단 이동하는 제왕비둘기 등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한 번쯤 보았을 법한 놀라운 대이동의 25장면을 소개한다. <한겨레아이들·1만3000원>



▲그 다리 아니야, 빌리!= 빌리는 문이다. 빌리의 첫 번째 다리는 의사다. 두 번째 다리는 요리사, 세 번째 다리는 소방관, 네 번째 다리는 공사장 일꾼, 다섯 번째 다리는 제빵사 등 다리마다 각각 다른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빌리가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니 다리들이 너무 피곤해 뒤죽박죽 꼬였다. 다리가 꼬여 실수를 저지르는 빌리의 에피소드를 담았다. <씨드북·1만2000원>

미켈란젤로를 찾아 떠나는 길위의 인문학

나의 이탈리아 인문기행

서경식 지음, 최재혁 옮김

1993년 출간된 '나의 서양미술 순례'는 많은 이들에게 '그림 읽기'의 입문서와도 같은 책이었다. 무엇보다 풍부한 인문학적 지식과 어우러진 그림과 작가, 그리고 여행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책의 저자가 대한민국에서 사상범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서승·서준식 형제의 동생으로 재일 조선족 청년 서경식이라는 사실도 화제였다.

이후 '나의 서양음악 순례', '나의 조선미술 순례' 등을 출간한 서경식(도쿄계



이자가 대학 현대법학부) 교수가 이번에 펴낸 '나의 이탈리아 인문기행'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로마, 페라라, 볼로냐, 밀라노 등 이탈리아 여러 도시를 방문, 다양한 예술가들과 예술작품을 만나고 느낀 점을 기록한 에세이다.

책은 미켈란젤로, 모딜리아니, 단테, 카라바조, 나탈리아 긴초브루그 등의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에피소드들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책을 번역한 최재혁의 말처럼 오래된 독자들에게 이번 책자는 '나의 서양미술 순례'의 충실한 속편처럼 느껴진다. "옛 친구와도 같은 미술가와 미술품, 거리 풍경들을 소환하며 거슬러 올라가고 다시 되돌아오는 시간 여행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래서 책을 읽다보면 '나의 서양 미술 순례'의 어느 부분을 자주 들춰보게 된다. '짧고, 섬세하고, 무지했다'던 30대의 청년이 찾았던 이탈리아는 60대가 돼 다시 방문했을 때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책에서 인상적인 대목은 토리노 여행길에서 만난 프리모 레비와 관련된 부분이다. 유대계 화학자이자 작가인 프리모 레비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경험

을 생생하게 묘사한 '이것이 인간인가'를 발표하며 인간의 폭력성을 고발했지만 1987년 자살하고 만다. 프리모 레비의 삶을 조명한 에세이 '시대의 증언자', '프리모 레비를 찾아서'로 마르코폴로상을 수상하고, 다큐 제작에도 참여했던 그는 프리모 레비가 자살한 아파트와 묘지를 찾는 여정, 프리모 레비가 체포되는 모습을 기억하는 노인과의 만남, 그의 친구·가족과의 인터뷰 등을 들려준다.

저자는 책 제목에 굳이 '인문기행'이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에 대해 "나의 바람은 인문학적인 정신을 과거 그대로 복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 재건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처한 위기를 자각하고 이를 뛰어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비·1만8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5년 이상 보증 기간에도, 물이 새지 않고 먼지 쌓이지 않는 '실내 동상성' 액자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옵션까지, 패션을 살려주는 인테리어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을 가는데!!!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온도차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2/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이너 잔 엔디나와의 콜라보 디자인!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헛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